

특별기획

부안군, AI 예방 총력

김제시 요촌동 통장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50만원 기탁

김제시 요촌동 통장협의회(대표 김만중)는 4일 요촌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요촌동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이웃돕기성금 50만원을 기탁하여 지역사회에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요촌동 통장협의회는 해마다 장학금 기탁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하여 왔으며, 특히 통장협의회장의 임기가 만료가 되는 시기임에도 요촌동 관내에서 온갖 궂은일에 솔선수범하는 물론 행정과 주민들을 연결해주는 가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성금을 기탁한 김만중 협의회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권재민 부군수, 철새도래지 예찰활동 근무자 점검

권재민 부안군 부군수가 관내 철새도래지를 방문해 AI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는 거점소독장소를 방문해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AI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권재민 부군수는 울포면갯벌생태공원과 계화들녘, 동진각 주변의 철새도래지를 방문해 철새들의 개체수를 확인하고 주변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사육현황과 방역상황을 점검. 철새 도래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통제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 부군수는 인근 사육농가에 대해 1공무원 1담당제를 추진해 농가별 방역상황을 매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권 부군수는 인접한 고창 동림저수지의 35만 마리의 가창오리를 예의 주시하고 줄포면 인근의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가창오리의 이동경로를 면밀히 파악. 반경 5km이내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다음달 22일까지 특별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철새 도래지 점검을 마치고



권재민 부안군 부군수가 AI 예찰활동을 벌이고 있는 관내 철새도래지 거점소독장소를 방문해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AI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AI거점소독장소를 방문하여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무환경, 식사와 간식, 음료수 제공 현황을 점검하고 근무지의 난방시설과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을 살펴본 후 최근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이 높아져 저녁 근무에 여성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들여달라고 부탁했다. 또 줄포초소에 간이 화장실이 1개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여성공무원들이 불편할 것 같으니 신속히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라고 지시하는 등 불편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을 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정읍 샘골보건지소, 8개 과목 대상 17~19일 신청 접수

샘골보건지소가 올해에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샘골보건지소는 이달 23일부터 6월 9일까지 제1기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주 1회 각 18회에 걸쳐 운영될 프로그램은 요가와 관절 튼튼교실, 성인·청소년 집콕운동, 신바람 건강체조, 9988 건강체조, 스텝박스, 기공체조·명상 총 8개 과목이다.

샘골보건지소는 건강생활실천 운동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오는 20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이영훈 교수를 초빙한 가운데 '뇌졸중 예방법'을 주제로 한 교육을 갖는다. 이날 교육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건강 관리법에 대한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희망 신청 접수는 17일 부터 19일까지로, 보건지소 교육실(2층)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샘골보건지소(☎530-6751~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최

부안군의회는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제27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부안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부안군이 올 해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해 김종규 부안군수로부터 청취하고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8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세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2017년 정유년은 부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현실화 돼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한걸 나아지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 재난안전 특교세 3억원 추가 확보

부안군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부안군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재해예방경보시설 구축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지난 2014년 15개소 설치된 시작으로 2015년 60개소, 2016년 65개소에 재해예방경보시설을 설치했으며 2017년 10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를 통해 총 200개소에 재해예방경보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부안군은 지난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여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울포추촌지구 유수지 및 배수로 정비사업 5억원, 위도 대리항 해안 방벽 정비사업 5억원 등으로 재해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AI 가축매몰지 현장점검 나서

김제시는 지난 4일 관내 AI 가축 살처분 매몰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김제시는 지난해 12월 20일 국내 대표 산간계 밀집지역인 용지면이 AI에 뿔리자 추가발생과 확산방지를 위해 민·관·군 등 3,122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지난달 28일까지 69농가 175만여 수에 대해 살처분과 산간계를 신

속하게 매몰처리를 완료하는 등 AI방역에 총력 대응해 왔다.

김제시는 매몰지 42개소를 찾아 매몰지역의 이상여부, 매몰지 관측정 설치여부, 경고표지판 설치여부 등을 점검하여 매몰지 사후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매몰지 현장점검반(반장 환경과장)을 운영하여 일일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매몰지 관리로 침출수 유출 방지 및 악취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승복 시장 권한대행은 "AI 매몰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안전관리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매몰지로 인한 2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생활체육·여가활동·주민화합의 장 되길'

정읍 산내면 종합체육센터 준공... 강당·샤워실·화장실 등 갖춰

산내면 종합체육센터 준공식이 5일 능교리 면사무소 앞 현지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김생기 시장과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 전북도의회 이학수 농산업경제위원장, 정읍시의회 김승범 의원과 김재오 의원, 김민영 정읍시산림조합장 등의 내외귀빈과 김병만 삼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 위원회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종합체육센터는 총사업비 21억원(국비 1,890, 시비 210)이 투입돼 산내면

능교리 579-27번지 일원 부지 1천898㎡에 연면적 723㎡ 규모로 건립됐다.

다목적 강당과 샤워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는 날씨와 관계없이 축구와 배구 등의 운동을 연중 언제든지 즐길 수 있게 됐다.

김생기 시장은 "산내면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종합체육센터가 완공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여가활동을 활성화에 기여, 면민들의 화합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산내면 생활환경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종합체육센터는 '뽕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삼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서는 시공사인 유한회사 도우중건설 이공화대표와 정종팔 현장소장에게 감사패도 전달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하서 문수마을에 '손그림 문패' 달아줘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어르신들 작품 30가구에

(사)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가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문수 마을 30가구에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손그림 문패를 지난 3~4일 2일에 걸쳐 집집이 달아줬다.

이번 손그림 문패 기증은 부안군지회가 지난해 11월 부안군 노인복지기금사업을 신청해 선정된 사업으로 부안군이 어르신 취미활동 일환으로 기금을 지원했으며 어르신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강사의 도움을 받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특색 있는 손그림 문패를 완성했다.

부안군지회는 문수마을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손그림 문패 설치로 마을경관이 개선돼 마을 방문객에게 감성 어린 볼거리를 제공하고 마을 어르신은 자긍의 복을, 주민간에는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손그림 문패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내 삶의 이야기가 문패에 고스란히 담겨있어 매우 뿌듯하다"며 손그림 문패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 에너지자립홈 1호 현판식

김제시는 에너지빈곤층 제로에너지 자립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5일 에너지자립홈 제1호인 교외동 저소득 가정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황용현 이사·김권중 안전기획처장·강대철 안전기획단장과 LG전자 조광희 상무·이재익 차장,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 최병철 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2016년 10월에 김제시, 한국전기안전공사, LG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개 기관이 MOU 체결하고 NGO단체 시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 12월에 저소득계층 17세대와 1그룹-홈에 태양광·창호설치, 전기설비 사업을 완료했다.

총 사업비 5,000만원으로 김제시가 태양광설치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고효율전기설비 보급 및 노후 전기설비 개선과 24시간 출동대기·사후관리를 하며 LG전자는 태양광 발전설비, LED전등 및 창호 설치사업을 지원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NOG단체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하여 배분원칙에 따른 사업비 집행 및 배분수행기관의 사업관리 감독하였다.

이승복 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며 우리 시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에너지사용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